

기업지원 통합 성과보고회 개최

전북자치도-전북바이오진흥원, 농생명산업의 우수성 공유·기업 간 협력 강화의 장 마련

전북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2월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육성사업,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통합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각 사업별 성과보고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성과보고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공유와 기업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농생명산업 분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을 비롯해 농생



명분야 대표기업 35개사,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22개사,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30개사의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했는데,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별 성장을 이룩한 무주덕유산반

딛골과 다락에프앤비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지리산처럼, 쿠앤크고공, 어성호, 산마을의 주요성과를 인정받아 바이오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전주대학교 전효진 교수가 '농생명식품산업의 혁신, 푸드테크 트렌드와 적용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 산업 트렌드와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은 환영사에서 "전북은 바이오진흥원을 중심으로 창업 아카데미 운영, 지역 일자리 창출, 전북 대표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성과를 이루며 농생

명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내년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농생명식품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부터 22일까지 하나로마트 전주점과 수도권 주요 판매장에서 전북 딸기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전북 딸기 홍보 판매전

전북농협, 통합마케팅 6천억 달성 기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12일부터 22일까지 하나로마트 전주점과 수도권 주요 판매장에서 전북 제철 과일을 맛 보이는 딸기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표 농산물인 딸기는 비타민C, 비타민A, 식이섬유,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도와 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이나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식이섬유 외 미네랄은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로써 건강에 도움을 준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전북 딸기는 지난해 634여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품목으로 지속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제철 맞은 신선한 전북농산물의 판촉행사를 계획하여 연중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광역브랜드 여담채를 구심점으로 전북 우수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마케팅 6천억 원 돌파를 이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창해에탄을·전북농협, 전북 쌀 소비촉진 업무 협약 체결

(주)창해에탄을(대표이사 임우석)과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2월 부안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찾아 지역사회의 쌀 소비 촉진을 도모를 위한 '전북 쌀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주)창해에탄을 대표이사, 전북농협 본부장, 전북지역 내 농민 약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협약 내용은 전북 쌀 소비촉진 캠페인 협력,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협력,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창해에탄을은 협약식 당일 1억5,000만원 상당의 전북 쌀을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쌀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주)창해에탄을의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캠페인 참여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창해에탄을 임우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수변도시, 성공적인 분양을 향한 '첫 걸음' 내딛다

새만금공사, 부동산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 초청 전략 자문회의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달 12일 부동산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분양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2025년도 새만금 '첫 도시'의 분양을 앞두고 안정적인 분양 흐름을 유도하고, '첫 분양' 상품과 1공구 분양전략에 대한 사업설명 및 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참석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새만금형 토지공급방식, 부동산 시장 동향, 투자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에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계획인구 약 4만명의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지뿐만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변도시에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대상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변도시만에 혁

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한 기업 수요에 통합개발 계획 변경 중이며, 인허가 승인이 후 1단계 토지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문회의 좌장을 맡은 단국대 사회과학대 학장 김현수 교수는 "분양초기에는 인프라 확충과 함께 토지가격 경쟁력을 구축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새만금 수변도시도 역시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한다면, 향후 인지도 상승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수변도시가 첨단 도시공간과 수변친화적 환경을 갖춘 미래형 거주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첫 분양'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중기청 등 17개 기관, '전북 주력산업 혁신네트워크'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12월 전주 라무체에서 전북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북 주력산업 혁신네트워크(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광역시·도가 협력하여 지역별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24년부터 시작한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이하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목적으로 도내 전문연구기

관·대학교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24년 시작돼 28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 1.0(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분야)의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소개, 25년부터 27년까지 추진될 프로젝트 2.0(농생명·바이오 및 탄소융복합소재 분야)의 계획 발표와 기업 확정 등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1.0은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관련 105개사를 대상으로 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수

출·혁신비마우치 및 스마트공장 등 388억원을 지원, 친환경 및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24년 1차년도 성과평가에서 전북지역이 최우수 등급(S등급)을 달성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2.0은 농생명·바이오와 탄소융복합소재 관련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25개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장을 선도 지원사업도 지원받게 된다.

/김옥기 기자

농진청-기상청, 겨울철 폭설 피해 사전 대응 주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겨울철 폭설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정보 사전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과 같은 눈 무게 예보를 도입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강원 영동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무거운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로 가볍고 마른 눈(건설)보다 밀도가 높아 같은 높이로 쌓여도 무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청 예보 정보를 발표 하루 전에 받아 농촌진흥기관에 공유, 기상특보 발생지역 농업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기상정보와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등을 발송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기관 관계관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에서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관들은 눈 무게 예보를 문자로 받아 영농 현장에서 활용하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과 영농 기술 보급 방안을 모색했다.

기상청 인회진 예보국장은 "겨울철 많은 눈으로 농업시설물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 경제적 손실도 큰 만큼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습설의 위험성과 현장 대응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보급하고,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영농 현장에서 폭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